

CCTV 최다 자치구인데… 강남구, 강력범죄 발생 1위

4년간 3만3337건의 강력범죄 발생
방법·치안 효과 높은 방안 마련해야

최근 4년간 서울에서 5대 강력 범죄 발생 건수 1위를 기록한 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방범용 CCTV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 5대 범죄 발생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총 3만 3337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송파구(2만6448건), 영등포구(2만6161건), 관악구(2만4329건), 마포구(2만2745건), 광진구(2만2145건), 강서구(2만1459건), 구로구(2만1296건)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에서 폐쇄회로(CCTV)가 가장 많은 자치구임에도 5대 강

력범죄 발생 빈도수가 높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에 설치된 CCTV 대수는 총 5232대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관악구(3471대), 구로구(2991대), 서초구(2835대)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의 범죄 발생 건수가 줄지 않아 방범용 CCTV의 범죄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정책과학학회보에 실린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정책의 방향' 논문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 설치 정책은 5대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민혁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논문에서 CCTV가 범죄 발생률을 낮추지 못하는 이유로 "지역 내 방범용 CCTV를 사각지대가 전혀 없이 설치하지 않는 이상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자는 단지 CCTV의 가시권을 벗어나

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방범용 CCTV만으로는 범죄예방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워 다른 정책수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방범용 CCTV 도입·관리를 확대하기보다는 저렴하고 방법 치안효과가 높은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실린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위치 적절성 및 효과성 분석' 보고서도 CCTV 설치가 범죄율을 줄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허선영 경상대학교 교수는 보고서에서 "CCTV는 해당 지역의 범죄 발생 현황을 반영하고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며 "각 자자체에서 CCTV 설치 시 참고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정비해 이와 같은 공간적 요소와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자료=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5대 범죄 발생현황 통계>

자치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강남구	8,851	8,617	8,149	7,720	33,337
송파구	8,004	6,778	6,090	5,576	26,448
영등포구	7,003	6,867	6,322	5,969	26,161
관악구	6,781	6,345	5,678	5,525	24,329
마포구	5,740	5,854	5,873	5,278	22,745
광진구	6,268	5,909	5,322	4,646	22,145
강서구	5,289	5,585	5,450	5,135	21,459
구로구	5,389	5,646	5,366	4,895	21,296
서초구	5,558	5,444	4,989	4,708	20,699
중랑구	5,353	5,193	5,041	4,571	20,158
강동구	5,392	5,244	4,462	4,261	19,359
노원구	5,312	5,130	4,543	4,209	19,194
종구	5,231	4,954	4,584	4,184	18,953
은평구	5,431	4,745	4,501	3,883	18,560
종로구	5,021	4,705	4,459	4,057	18,242
동대문구	4,363	4,720	4,787	3,975	17,845
양천구	4,642	4,528	4,112	3,882	17,164
성북구	4,606	4,154	3,744	3,434	15,938
강북구	4,030	4,257	4,229	3,393	15,909
용산구	3,799	3,820	4,137	4,060	15,816
서대문구	4,194	4,029	3,665	3,113	15,001
금천구	3,842	3,781	3,645	3,265	14,533
동작구	3,869	4,074	3,227	3,330	14,500
성동구	3,582	3,358	3,026	2,767	12,733
도봉구	3,124	2,664	2,438	1,999	10,225

경기도 '2035년 용인, 평택 도시기본계획' 승인

지역 내 주요개발 사업 탄력 받아
자족도시 구축·균형발전 계기 마련

경기도가 용인시와 평택시에서 각각 신청한 '2035년 용인,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8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지역 내 주요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35년 용인, 평택 도시기본계획'은 용인시와 평택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공간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 인도시발전 로드맵이다. 2035년 용인, 평택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용인시와 평택시는 각 2035년 목표 계획인구를 기준 2020년 도시기본계획 대비 용인시는 8만7천명이 증가한 128만7천명으로 평택시는 4만명이 증가한 90만명으로 설정했다.

시가화용지(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는 용인시가 54.047㎢, 평택시는 103.594㎢으로 확정했으며 시가화예정용지(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공간)는 용인시가 47.923㎢, 평택시는 36.588㎢로 확정했다.

도시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도시공간구조와 생활권도 개편했다. 용인시는



경기도청 전경

도시공간구조를 2도심(행정도심, 경제도심) 5지역 중심(포곡, 모현, 남사, 이동, 양지, 백암, 원삼)으로 구축하고 생활권은 기존 5개 생활권에서 2개 생활권(기흥 수지권역, 처인 중심권역)으로 설정했다.

평택시는 도시공간구조를 2도심(행정문화도심, 물류관광도심), 3지구 중심(진위, 청북, 팽성)으로 구축하고 생활권은 기존 3개 생활권에서 2개 생활권(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교통계획으로 용인시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GTX 광역철도, 인덕원~수원선 등의 철도계획을 반영했고 평택시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평택~부발선 등의 철도계획을 반영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는 각 시의 주요개발 사업을 반영해 지역 현안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는 GTX 역세권 복합단지, 포곡 모현 문화관광 복합밸리 등의 사업을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배후도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등을 반영했다.

이번 2035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용인시는 경제자족도시 구축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평택시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과 함께 경기남부 광역거점도시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용인시와 평택시는 이번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11월 중 각 시 공보 등에 게재하여 공람할 예정이다.

/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中企제품 6억달러 규모 中 수출

서울시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수입박람회'에서 6억 달러 규모의 구매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지난 6일 중국 칭다오시 우수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DDP 내에 '하이서울쇼룸'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서울어워드'로 지정해 유통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상하이 국제 수입박람회는 중국 정부와 상해시 인민 정부가 운영하는 행사다. 5~10일 중국 상하이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며, 130개 국가 2800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 중소기업은 향후 5년간 6억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하게 된다. 제품규격, 운송방법, 지불방식 등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패션 중소기업과 신진 디자이너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DDP 내에 '하이서울쇼룸'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서울어워드'로 지정해 유통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이번 협약체결은 우수한 품질의 서울 중소기업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해 경쟁력 있는 우수제품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시민들이 가을비를 맞으며 출근하고 있다. 이날 내린 비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보통' 수준으로 회복됐다.

/연합뉴스

세계 경제 리더, '서울의 미래 혁신성장' 모색

오늘 제17회 SIBAC 총회 개최

포브스, 지멘스, 아우디 등 세계 유수 기업 대표와 글로벌 경제 리더가 서울의 미래 혁신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9일 신라호텔에서 '제17회 2018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Seoul International Business Advisor Council) 총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SIBAC은 지난 2001년 설립한 서울시장 자문기구다. 현재 맥킨지, 노무라, 포브스, 지멘스, 브룩필드, 아우디, 노바티

스 등 세계 유수 기업 대표 28명과 자문역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회의 총회가 열렸다. 그동안 SIBAC은 경제·사회·도시·인프라 등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334건을 자문했고, 이 중 282건(84%)이 시정에 반영됐다.

시는 스타트업 투자(요즈마그룹), 게임(CC), 도시 인프라(MIT 랩) 등 새로운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를 신규위원으로 위촉해 자문과 논의의 저변을 확장한다.

이스라엘의 선도적 스타트업 생태계

를례로 손꼽히는 요즈마 그룹의 이갈 애를리히 회장, 세계적인 가상현실 게임 개발회사인 CCP Games의 힐마르 페트루손 최고경영자, 디지털 기술이 도시의 생활 방식과 의미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MIT 랩 카를로 라띠 소장 등 3명이 신규위원으로 위촉됐다.

올해 SIBAC 총회에서는 미래 유망 산업 거점 조성(R&D, 바이오·의료, 도심제조, 문화콘텐츠),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논의한다.

박원순 시장은 "세계적인 기업의 리더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비전과 전략을 듣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이달 초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 현상은 국내 대기 정체와 중국·북한 등 외부에서 유입된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8일 오전 시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지역 최근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원인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4일 동북아시아 지역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이 정체돼 초미세먼지 농도(28~44㎍/㎥)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5일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북서풍 기류(중국 북동부)를 따라 국외 대기오염 물질이 수도권으로 유입돼 PM-2.5 농도가 54㎍/㎥ 까지 치솟았다. 6일에는 지속적인 대기 정체로 높아진 미세먼지에 북한 지역으로부터 추가 유입된 오염물질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103㎍/㎥에 달했다.

연구원은 "지난 1, 3월 초미세먼지 고농도 때와 달리 국내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북풍계 열의 기류로 국외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김현정 기자